

**2000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개최 안내**  
(KCUE UNIVERSITY FAIR 2000)

2000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오시면 전국 대학의 자세한 입학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박람회 개요

- 기 간: '99. 11.26(금)~11. 29(월)
- 장 소: 서울무역전시잠(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소재)
- 주 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주 관: 박람회 준비위원회, 코엑스, KBS영상사업단
- 후 원: EBS, KBS

■ 행사내용

- 각 대학별 입학관련 책자 및 안내서 배포
- 각 대학별 입학관련 상담 및 질의·응답
- 각 대학의 홍보 영상물 상영
- 전국 대학 입학정보 검색
- 일부 대학 입학원서 판매 예정

된 교교의 수행평가 사례와 향후과제', '2002학년도 국립대 대학입학전형 계획' 등이다.

☾ **아시아·태평양지역  
고등교육협력기구  
서울회의 개최**

대교협은 9월 16일~17일 이틀간 웨라튼위커

☾ **'99년도 하반기 국내 교류교수  
회의 개최**

대교협은 '99년도 하반기 국내 교류교수 10명을 대상으로 교류근무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류교수에게 연구비 총액의 50%를 지급했다.

☾ **대학입학제도 연구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대교협은 9월 1일 대학입학제도의 지속적 연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할 임기 1년('99.9.1~2000.8.31)의 대학입학제도 연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9월 7일(화)에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2학년도 새 입학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방안과 그 운영에 관

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위원회 위원은 국립대, 사립대, 교육대, 산업대, 고등학교, 교육청, 교육부, 대교협 등 관계기관 입학관련 책임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02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심포지엄 개최**

대교협은 고교1학년 재학생의 학부모와 진학담당 교사를 주요 대상으로 9월 10일(금) 오후1시 30분부터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2002학년도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른 학부모·교육관계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새로운 인재상', '일반고교 수행평가의 사례와 향후 과제', '2002학년도 사립대 대학입학전형 계획', '특성화

힐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 고등교육협력기구(UMAP: University Mobility in Asia & the Pacific)의 서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고등교육기관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고 대학의 학제, 교육과정, 학점 및 학위의 상호 인정 등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참가자는 UMAP 회원국 9개국에서 22명과 국내대학에서 30여 명의 총장·부총장 및 국제교류처장이 참석했다. 또한 UMAP 서울회의에 앞서 9월15일에는 대교협과 호주대학총장협의회(AVCC: Australia's Vice-Chancellors Committee) 대표단과 소규모 세미나 개최와 함께 상호교류 협정 조인식을 가졌으며, 이날 저녁에는 UMAP 집행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 ㉷ 제3회 대학교육정책포럼 개최

대교협은 9월 29일(수) '제3회 대학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의 주제는 '21세기 대학입학관리체제의 발전 방안'이며 회원대학 총장, 교무·입학관리처장, 관련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I, II에 이어서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있었다. 이날 기조강연과 주제발표는 다음과 같다. ▲ 기조강연: '2002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관리체제의 정책방향' ▲ 주제발표I: '2002학년도 이후의 대학 신입생 모집시기의 다양화 방안' ▲ 주제발표II: '2002학년도 이후의 대학 입학전형절차의 효율화 방안'

### ㉸ '99년도 학문분야 평가기준 검토를 위한 평가전문가 회의 개최

대교협은 '99년도 학문분야 평가대상인 법학계열과 건축학계열의 평가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9월 17일(금)에 이 초안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학계열과 건축학계열 전공교수 9명씩을 참석하여 대교협이 개발한 평가기준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며, 향후에는 피평가

대학 관계 교수로부터도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 ㉹ '99년도 산업대학 종합평가위원 워크숍 개최

대교협은 금년도 10개 산업대학 종합평가를 위하여 24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평가위원 워크숍은 9월 20일에 그리고 제2차 평가위원 워크숍은 10월 8일에 개최했다. 2차리에 걸친 이번 평가위원 워크숍에서는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의 검토, 서면평가의 방법, 현지방문평가의 절차 및 방법 그리고 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대학현장 방문은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1주간 실시했다.

### ㉺ 9개 국립대학교 경영진단 실시

교육부가 '97년부터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한 바 있는 국립대학 경영진단사업을 금년에는 대교협이 위탁받아 학생수 15,000명 미만의 9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규모 국립대학의 운영 시스템을 모색하고 아울러 지방 국립대로서의 특성화 모형을 개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번 국립대 경영진단 결과는 금년

12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 '99년도 일반대학 종합평가위원 워크숍 개최

대교협은 금년도 38개 일반대학(대학원, 분교 포함) 종합평가를 위하여 42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평가위원 워크숍은 10월 1일(금)에 그리고 제2차 평가위원 워크숍은 10월 22일(금)에 개최했다. 2차리에 걸친 이번 평가위원 워크숍에서는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의 검토, 서면평가의 방법, 현지방문평가의 절차 및 방법, 그리고 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대학현장 방문은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

### ㉼ '99년도 10개 산업대학 현지 방문평가 실시

대교협이 위촉한 34명의 평가위원이 10개 산업대학에 대한 현지방문 평가를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1주간에 걸쳐 실시했다. 현지방문평가위원은 A·B·C·D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반의 위원장으로는 A반: 김명환(경북대) 교수, B반: 박영우(전북대) 교수, C반: 이진희

(이화여대) 교수, D반: 송병순(영남대) 교수이며, 위원들은 모두 30명이다.

☪ '99년도 38개 일반대학 현지 방문평가 실시

대학교협이 위촉한 42명의 평가위원이 38개 일반대학(분교, 대학원 포함)에 대한 현지방문 평가를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했다. 현지방문평가위원은 A·B·C·D·E·F·G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반의 위원장으로는 A반: 박병량(부산대) 교수, B반: 주삼환(충남대) 교수, C반: 이형행(연세대) 교수, D반: 유지성(한양대) 교수, E반: 강석호(영남대) 교수, F반: 임영철(평택대) 교수, G반: 김광수(전남대) 교수이며, 위원들은 모두 35명이다.

☪ 대학의 핵심 전문가 육성을 위한 4종의 패키지 프로그램 개설

대학교협은 대학 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분야별 핵심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15개 과정 중에서 4개 과정을 9월 14일~16일까지 한국증권연수원(충남 아산시 소재)에서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4개 과정은 「대학 홍보

실무 과정」, 「대학 구매실무 과정」, 「관리자 직무능력 향상 과정」, 「신입생 확보 및 등록금 유지관리 과정」이다. 이 과정은 다양한 도구 및 기법을 활용한 실습 및 사례 중심 학습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학습 방법을 계속 활용하는 것은 지난 4월에 개최되었던 1차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 대학 시설관리직 워크숍 개최

대학교협은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강원도 양양군 소재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대학 시설관리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 프로그램은 설비의 만성적인 감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현상분석 능력 배양과 설비교장의 예지 보전, 실무추진 능력 개발 그리고 대학 시설관리 업무 담당자로서의 기본 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 21세기 대학의 변화 전망과 직업능력 개발 ▲ 총체적 설비보전(TPM)의 사상 및 필요성, 계획보전의 개요 ▲ 예방보전(PM) 계획과 보전활동 ▲ 예지보전 ▲ 예비품(S/P)과 보전비관리, 고장줄이기, 설비관리 전산

화 ▲ 대학인의 리더십 ▲ 고객만족과 서비스 등이다.

☪ 대학 교무행정직 워크숍 개최

대학교협은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강원도 양양군 소재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대학 교무행정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 프로그램은 대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합리적인 학사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교무행정 전반에 대한 사례발표 및 분과토의와 교무행정 업무 담당자로서의 기본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구체적인 주요 프로그램의 내용은 ▲ 21세기 대학의 변화전망과 교무행정 혁신 ▲ 학생 선택권 중심의 전공운영과 학사지원제도 ▲ 학부대학과 학사지도교수제의 운영방향 ▲ 교육부와의 대화: 대학 교육개혁과 학사행정의 정책방향 ▲ 사례발표: 대학 교무행정의 현황과 개선 ▲ 대학인의 자기개발과 리더십 ▲ 커뮤니케이션과 프레젠테이션 등이다. 특히, 분과토의 주제로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학사관리, 교원인사관리의 합리화 방안, 수업 및 학적관리의 문제와 개선방안 등이었으며 참가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

로 심도있는 논의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

### ☞ 대학 체육지도자 워크숍 개최

대교협은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강원도 양양군 소재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대학 체육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 프로그램은 한국체육학회의 협조하에 대학 체육지도자의 전문성 신장과 대학의 체육부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처음 개설되었다. 구체적인 주요 프로그램의 내용은 ▲ 체육지도자 양성의 과제와 전망 ▲ 체육지도자의 리더십 ▲ 대학 체육지도자의 역할과 과제 ▲ 체육특기생의 선발과 지도방안 ▲ 운동선수의 효과적인 지도기법 ▲ 공공 스포츠 마케팅 전략 등이다. 특히 분과토의 주제로는 대학 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위상, 체육지도자의 저변 확대 방안, 대학 체육행정의 과제와 개선방향 등이 선정되어 참가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

### ☞ 청소년을 위한 지역별 회의 개최

대교협이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12월 2일 서울 잠실역도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자원봉사 전국 지도자 대회”에 앞서, 청소년 자원봉사 영역의 실천적 정책개발을 위하여 지역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지역별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종합적 전략방안 발표는 12월 1일에 개최되는 서울 종합 컨퍼런스에서 하게 되며, 이어서 다음날에 있을 “자원봉사 전국 지도자대회”에서 공동선언이 있을 예정이다.

### ☞ 연구보고서 발간

#### ■ 「대학간 교류활성화 및 고등교육 국제비교 연구」(연구보고PR 제98-14-173호)

대교협은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연구분야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대학간 교류 활성화 및 고등교육 국제비교 연구」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국내대학간 그리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의 교육·연구 교류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국가·대학간 교류사례, 국내대학간 그리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 고등교육의 국제비교, 제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대학의 교육·연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기구로서 대학간 교류협력위원회(가칭)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실제로 가동되면 대학간 교류를 체계화·효율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21세기를 대비한 학과평가 활성화 방안」

대교협이 발주하여 한국고등교육연구회가 수행한 「21세기를 대비한 학과평가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가 최근 발간되었다. 이 연구는 현행 대교협이 수행하고 있는 학과평가인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가올 21세기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학문계열 평가인정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즉, 10년 가까이 적용해 온 현행 학과평가인정제의 기존 틀로서는 더 이상 21세기 대학현장을 진단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학문계열 평가인정제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 III장에서는 새로운 학문계열 평가인정제 제로서 개념과 목적, 평가대상, 평가기구의 유형, 절차와 방법 및 관리체제를 새롭게 강구함으로써 향후 대학이 학문계열 평가를 준비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3]